

축 사

조 종 익
(국회의원)



친애하는 20만 양돈인 가족을 대표한 양돈협회 회원 여러분!

전국 양돈농민의 '87년도 돼지불황 방지를 위한 자율적 돼지 생산조절 결의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육류를 비롯한 축산물의 수요증가로 규모가 확대되고 농어가 소득에서 큰몫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기간산업으로 까지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축산업이 농업 총생산액중 25.3%를 차지할 만큼 축산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축산업이 발전하는데 양돈인 여러분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79년과 '83 년도에 세차게 몰아 부쳤던 돼지과동으로 여러분들은 자식과도 같은 돼지 새끼를 남몰래 강물에 띄워 버릴 정도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오늘의 양돈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과잉생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급조절을 하기 위하여 본 위원도 축산법개정 소위원으로 축산법을 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양돈업이 '85년부터 호황을 누리게 되더니 다시 신규 대단위 업체가 급격히 늘어나고 정부가 수급조절에 실패를 하게되어 돼지 사육두수가 급격히 늘어 360만 마리를 넘어서 큰불황이 예상되는 이때에 생산자인 양돈인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에 참여하여 양돈업에 안정적 발전에도모하는 전국 양돈인 생산조절 결의대회야말로 농수산정책을 다루는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 무척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양돈인 여러분은 지난날의 쓰라린 경험을 교훈삼아 축산업에 거는 국민적 기대와 국가경제 측면에서 어느때 보다도 축산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지난날의 시련을 극복하고 인내와 긍지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때 일수록 정부와 국민들은 양돈인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는 대단히 클것입니다.

앞으로 양돈인 여러분과 정부, 국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축산물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등 국내 돈육소비 저변확대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합시다.

전국 양돈인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축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김 현 욱
(국회의원)



오늘 제 4 회 전국 양돈인 생산조절 결의대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돈농가를 뵙게되고 또 자리를 같이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양돈은 부업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규모도 커가고 있음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양돈산업이 이와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성장하는데는 전동용 회장님의 크나큰 공헌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양돈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보기 좋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이런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단체를 저는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매우 부러워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이와같은 자리를 축하해 주고 동참하기 위해 법률심의로도 잠시 미루고 참석했습니다.

생산인 스스로 생산을 조절하여 돼지 파동을 막아보자는 큰 뜻은 소비자도 보호하고 국가 경제도 살리자는 애국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자랑스러운 자리를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김성식의원, 정부의 축산관계자들과 함께 미국 축산업계를 둘러보았는데 그 곳에서는 자조금제도를 활용하여 평상시 일정한 돈을 거출하였다가 파동이 왔을때 그 돈을 가지고 불황을 극복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양돈인들도 국가경제와 농촌경제를 일으키는 지렛대 역할을 해 주실걸로 믿습니다.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자조금제도를 실시하여 불황에 대비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현대축산인이 가져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조금제도에 적극 협조하여 여러분들의 권익보호에 스스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기업농들은 계열화등을 실시하여 자기만 잘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2~3 마리 기르는 부업농들도 아끼며 같이 공존공생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다시한 번 양돈인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생산을 조절하여 내년에도 파동없는 해가 되길 바라며 건강한 나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